



매디슨 한인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홍진국 클레멘스 (608) 231-2350

본당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thekccm>

[연중 31 주일 (모든 성인 대축일)]

2009 년 10 월 31 일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이준범 베드로, 김다은 레아

다음주 독서: 유도일 하비에르, 조은경 수산나

이번주 복사: 신승원 로이, 강선우 마르가리타

이번주 미사 해설: 함승호 베네딕다

다음주 미사 해설: 신정혜 세레나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회 계: 정상혁 토마스 아퀴나스, 유현영 사도 요한

친교실 정리: 우리구역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헌금: \$ 160

매일미사: \$ 15

합계: \$ 175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 시 30 분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 양지웅 라파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추후 공지
예비자 교리	매주 목요일 저녁 8 시, 사제관, 김 아셀라 수녀님
학부생 성서모임	매주 월요일 저녁 8 시 30 분, 성당 사무실, 정원심 크리스티아

† <오늘의 묵상>

마음의 가난과 슬픔 자체가 행복은 아닙니다.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잡이'일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 이들은 쉽게 마음을 엽니다. 조금만 잡아 끌어도 하느님을 찾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이끄심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면 누구나 행복한 것이지요. 행복의 조건은 주님께서 '함께하시는지', '함께하지 않으시는지'에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기에 주님께서 찾아 주십니다. 슬픔에 잠겨 있기에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의 방문과 위안을 깨닫는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겪는 '사건과 만남' 속에는 그렇게 주님의 개입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이 가난하고 슬픈 사람이라도 열매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셔야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소유가 많아지면 주님을 외면하려 듭니다. 본인도 모르는 새 '자만의 유혹'에 빠져듭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늘 부족한 마음을 안고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많은 교우들은 고통을 만나면 '화살 기도'를 바칩니다. 화살처럼 빨리 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오시기를 청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함께하시면 누구나 행복해집니다.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든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슬프더라도, 짜증과 원한에 잠겨 있다면 주님의 힘은 오시지 않습니다. 행복할 리 없습니다. 행복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제 1 독서> 묵시록 7,2-4.9-14 <내가 보니,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2 독서> 요한 1 서 3,1-3 <우리는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뵈게 될 것입니다.>

화답송

◎ 주님, 이들이 당신 얼굴을 찾는 세대이옵니다.

○ 주님의 것이라네,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온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그분이 물위에 세우시고, 강 위에 굳히셨네. ◎

○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한 이, 헛된 것에 정신을 팔지 않는 이라네. ◎

○ 그는 주님께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하느님께 의로움을 얻으리라. 이들이 야곱이라네. 그분을 찾는 세대, 그분 얼굴을 찾는 세대라네.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 알렐루야.

+ 마태오 5,1-12 ~

복음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영성체송]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보리라.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리라.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오늘의 성가] 입당: 294 봉헌: 514 성체: 180 파견: 27

† <생명의 말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한 신자분이 중병에 걸려 몇 번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위험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 결과가 좋아 기적적으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병문안을 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 병원 옥상에 간신히 한 걸음씩 올라가 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었습니다. 여태껏 보아온 하늘이었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하늘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하늘이 너무 고마워 그만 눈물을 펄펄 쏟았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저는 이제 사랑만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제 주위의 모든 것이 더없이 감사합니다.”

그는 두 발로 걷고 하늘을 볼 수 있는 것, 일상적인 모든것이 행복이라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었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새롭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자신의 처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어쩌면 인생은 평생 행복을 찾아 헤매는 나그네길인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행복이 아닌 것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선언 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자세로 하느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세상 어떤 것에도 애착을 갖지 않고 온전히 하느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비운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소유해야 행복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버려야 행복해진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나약함을 체험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눈을 들어 이웃과 주님을 찾게 됩니다. 마음으로 가난한 이가 진정 행복하다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 역설적인 진리를 빨리깨닫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조건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 수녀님은 행복해지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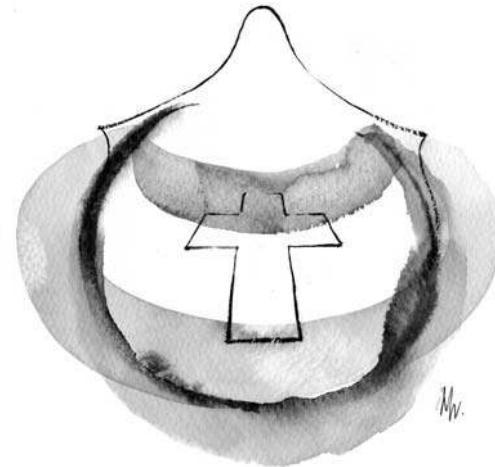
“당신이 가는 곳마다 사랑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먼저 당신 자신의 집에서 그 일을 실천하세요. 당신의 자녀와 남편을 사랑하세요. 어떤 사람이든 당신을 만나고 나면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지게 하세요. 하느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표현되도록 하세요. 당신의 얼굴에, 당신의 눈에, 당신의 미소 속에,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 하느님의 사랑을 표현하세요.” 과연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나는 어디에서 복을 찾고 있습니까?

† <알려드립니다>

- ❖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다음주 미사는 St. Paul 본당 일정때문에 11월 8일 일요일 오후 2:30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 오늘은 매월 마지막주에 있는 2차 헌금이 있는 날입니다. 연말까지 모아지는 2차 헌금은 우리 공동체가 매년 St. Paul 본당에 내는 성당사용료 (\$2000 - \$3000)를 위한 기금으로 적립될 예정입니다. 2차 헌금을 위한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공동체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해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교우분들께서는 이은아 아네스 자매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역 소식>

- ❖ 지난 8개월간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셨던 최호용 요한보스코 형제님께서 오늘 미사를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형제님과 가족들에게 항상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마태 5,1).